

# 해외출장(홍콩) 요약

부서 : 연구기획실  
 자료제공 : 남원석  
 작성일 : 2018년 7월 23일  
 게시요망일 : 2018년 7월 27일

## 제목 : [해외출장노트] 제8회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 1) 출장배경 및 일정

-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8회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East Asia Inclusive City Network Workshop)에 참석하여, 서울시 정책사례 발표 및 각국 대도시의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등을 공유  
 (발표주제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성과와 과제-사회주택 공급을 사례로)

일 정	활동지역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7.10(화)	인천/홍콩	출국	(인천→홍콩)
7.11(수)	홍콩	현장방문	홍콩의 비영리조직 및 현장 방문 (1) Caritas Community Center (2) Cadogan Street Temporary Garden (3) Viva Blue House (4) Transitional Housing (5)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6) Rough sleepers
7.12(목)	홍콩	HK Baptist Univ.	워크숍 참석 · Session1 / Housing and Related Concerns for the Poor, the Youth and the Homelessness · Session2 / Policy Forum I: On Social Welfare
7.13(금)	홍콩	HK Baptist Univ.	워크숍 참석 및 발표 · Session3 / The ‘Co-‘ Experiments: Some Reflections · Session4 / Reflections on Urban Regeneration · Session5 / Policy Forum II: On Social Welfare
7.14(토)	홍콩/인천	입국	(홍콩→인천)

## 2)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 개요

- 최근 들어 빈곤이 도시 내에서 점차 확산되는, 이른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에 대한 학술적·실천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고 있는 취약집단들의 소요(needs)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의 재생 방안 등이 주요 관심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일본, 한국, 대만, 중국(홍콩 포함) 등 동아시아 국가나 지역 역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음. 경제 및 산업의 전지구적인 재편 하에서 고용, 보건, 교육, 주택, 시민권 등이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각국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나름대로 수년간에 걸쳐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음
-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한국, 일본, 대만, 중국(홍콩 포함) 등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자 및 현장활동가들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음
-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 국가를 변경하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도시/국가에서 15~20명이 참가하고 있음

구분	개최지	구분	개최지
제1회	대만 타이베이	제5회	대만 타이베이
제2회	한국 서울	제6회	한국 서울
제3회	일본 오사카	제7회	일본 오사카
제4회	홍콩	제8회	홍콩

### 3) 현지활동

#### (1) 기관 및 현장견학

##### ■ Caritas Community Center

- 천주교 재단으로 1953년에 설립
- 300여종의 서비스와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 1년 예산이 15억 홍콩달러
- 커뮤니티센터로 3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활동의 목적이 있음
-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홈리스, 사회취약계층이며,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및 자활을 유도
-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에서 온 여러 인종이 겪는 어려움도 중요하게 고려하며, 저소득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함
- 최근에는 역사 주변과 마을을 연결하는 설계과정에 주민참여 진행
  - 역사주변의 어메니티가 부족한 것이 홍콩의 특성으로, 새로 지어지는 역사주변의 공간을 같이 설계하고자 했음
  - 주민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정부나 지하철 공사에 전달
- 이 지역이 경사가 많은 곳이라 사람들이 모이는 개방공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중 공간 하나를 확보하여 마을축제를 진행
  - 경사진 곳을 이용해도 극장처럼 주민 모이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됨

##### ■ Cadogan Street Temporary Garden

- 홍콩 정부는 토지문제를 절대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빈 공유지를 대상으로 주택개발을 시행
- 이러한 공유지는 망창지로 불리는데 공원, 기숙사, 마을회관 등이 해당되며, 이 곳에 민간주택이 들어서게 됨. 필요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으로 묶어서 대규모 개발을 추진
- 현 장소는 원래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곳이었으며, 오염이 심해 공원으로 20년간 유지됨
- 그 후 정부는 2000년의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고급주택을 포함하여 공원 전체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 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발을 반대함: 주민들은 주택부지의 부족문제가 단순히 토지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토지행정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7,600건의 주민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전달했으며, 공원에서 30일 동안 천막농성을 전개함. 공원에서 주민대상 영화상영회도 개최함. 그밖에 구의원도 참여했으면 서명운동도 전개 -> 2017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결정함
- 주민들은 홍콩 정부의 망창지 개발이 공적 공간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주민들의 반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음.

### ■ Viva Blue House

- 완차이 지역에 있는 노후한 6층 건물을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
- 70~80년대에 정부가 구매한 건물은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건물 역시 정부소유의 건물이었음
- 재생사업 이후, 8명 원주민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도록 했음. 12명은 시세에 준하여 임대료를 부과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및 청년 등과 협업
- 1층에 토산물 판매, 아나바다가게, 식당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 주도로 건물관리

### ■ Transitional Housing: 홍콩식 사회주택 개념

-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중 3년 이상 대기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 (통계적으로 평균 입주대기 기간이 5년)
- 입주자는 쪽방 거주자여야 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우선 입주
- 7층 건물에 승강기 없음. 4개 층에 61가구를 입주시키고, 각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운영하여 2가구(2-3명)이 거주하도록 하였음
- 입주하려면 공동주택 거주교육, 공동관리 규칙 만들기, 상호케어 등에 대해 교육 이수
- 방은 개별사용, 화장실 및 욕실과 부엌은 공동사용
- 2년 이후 퇴거 시에는 상담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소개함
- 민간집주인 중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재건축 자금이 부족한 경우, 민간단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하는 것이 가능함
- 정부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는 최저소득가구는 그 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며, 비수급자는 소득의 1/4을 임대료로 지불

### ■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SoCO)의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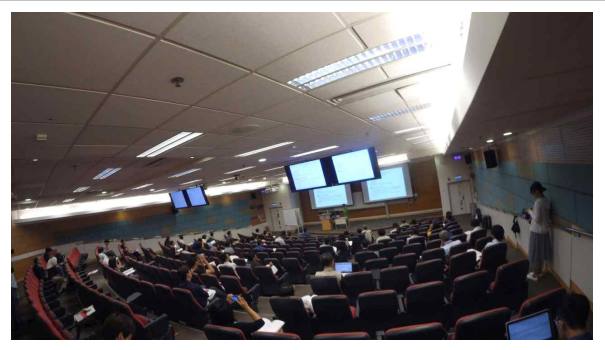
- SoCO는 홈리스 및 비정상 거처 가구의 주거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며, 그 일환으로 쪽방 거주자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화보집을 만들고 상설 전시함으로써 쪽방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매개로 활용
- 쪽방 거주가구 중 노인이나 가구원수가 많은 가족이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므로 청년 1인가구는 장기간 쪽방에 거주해야 함
-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파이프를 노출형으로 주택을 설계함. 파이프를 넘나들어야 하며, 부서질 경우 위생 문제 발생
- 5제곱미터에 월 2,500홍콩달러 정도 지불하는 경우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임

### ■ 노숙인 거처

- 육교, 고가도로 하부, 공원을 중심으로 노숙인의 거처가 형성돼 있으며, 기독교단체 등에서 급식봉사를 실시
- 육교의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인적이 뜸해지면서 노숙인 거처로 활용
- 지자체에서 노숙인 거주 방지를 위해 기다란 화단을 설치했으나 효과 미미
- 고가도로 하부에 판자로 거처를 만들어 생활하며, 자국민과 베트남인 거주지로 구분
- 약물사용 및 거래 적발 시, 해당 판자집은 철거하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신규 진입 방지

## (2) 워크숍 참석 및 발표

- 총 23편의 논문 및 활동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면서 각국 대도시의 주거정책과 도시재생을 위한 현장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함
- 한국은 총 26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0명이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 스마트시티 관련 실천사례, 청년 주거문제, 공공임대단지의 일자리 상담 및 지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과제, 보금자리 공동체의 역사, 경의선 공유지 활용, 도시재생과 주거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
- 출장자가 발표한 사회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등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 현황 및 지원체계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짐  
\*발표주제: Social Investment Fund in Seoul : policy issues for promoting social housing supply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연구기획실 남원석 연구위원(2149-1177)